

2023 문화다양성 소모임 영상제작 지원

비비리리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목차

1

프로그램 소개

- 1-1. 프로그램 취지
- 1-2. 프로그램 구성

2

프로그램 진행과정

- 2-1. 문화다양성 소모임 소개
- 2-2. 문화다양성 영상제작팀 소개
- 2-3. 멘토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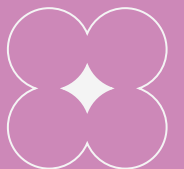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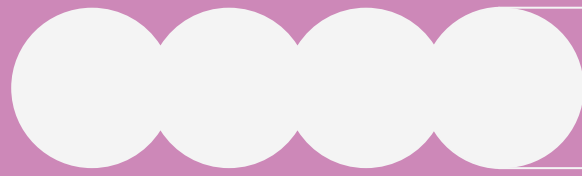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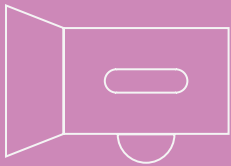
프로그램 결과

- 3-1. 문화다양성 소모임
- 3-2. 문화다양성 영상제작팀

4

별첨자료

- 4-1. 활동보고서 양식
- 4-2. 멘토링보고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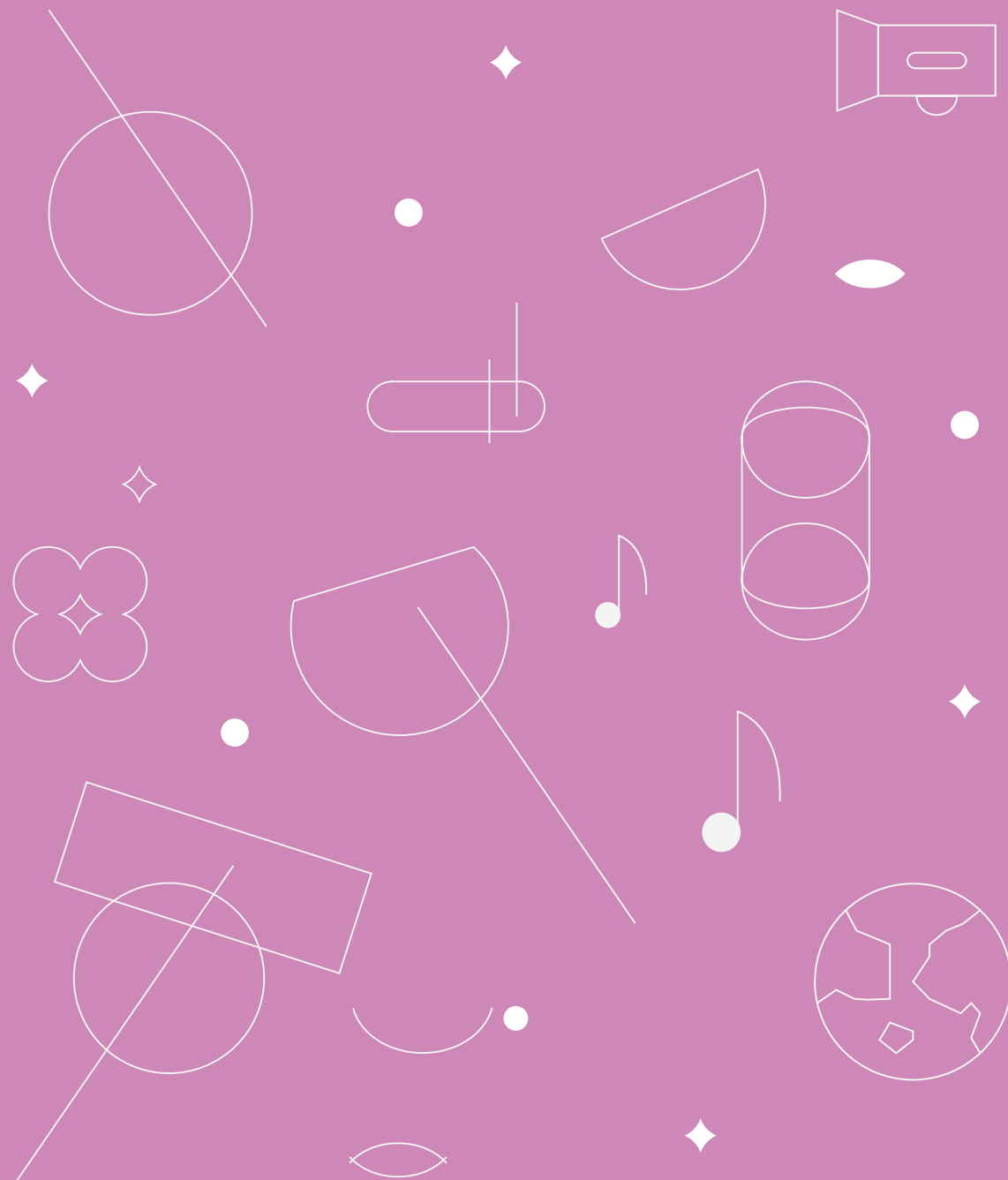


프로그램 소개

1-1. 프로그램 취지

1-2. 프로그램 구성

1



1-1

프로그램 취지

01

<별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마치며

우리가 모두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나와 너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똑같다면, 우리는 왜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다양성은 나를 나답게,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치입니다. 모두 각자가 존재의 이유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세상은 '보통과 다른 것가지'라는 의미의 '별별'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다양성으로 꽉 들어찬 곳입니다. 세상은 다양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다양성을 부정하고, 각자가 가진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며, 반목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혐오와 차별이 더욱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다양성을 인식하고 즐기고 뽐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별별 프로젝트>에서는 특별한 전문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부평구의 시민이 함께 즐기고 누리는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는 다양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는 다양성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별별 프로젝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한 다양성이 아니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다양성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습니다. 기존의 많은 프로그램이 원칙적으로는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게 열려 있지만, 사실상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보다 넓게 열려있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실제로 기회를 가지는 자리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별별 프로젝트>에서는 시민에게 최초 경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의 다양성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율성, 책임감,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구상하였습니다.

01

<별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마치며

<별별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우선, 문화다양성을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양성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왔지만, 다양성을 인지한 상태로 세상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들은 한 달여의 과정에서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활동가와 기획자들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확인하고, 이를 일상에서 문화기획을 통해 확산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최초로 기획한 자신만의 기획을 수정·보완하면서 각자 준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팀별로 선정된 멘토와의 시간을 통해 함께 고민을 더 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팀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일상에서 겪었던 다양성 이슈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빛나는 특별한 기획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서 실천 및 확산 가능한 방식의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별별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참여자들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스스로 수행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일 것입니다. 음식점에 아무리 다양한 음식 메뉴가 있어도 맛을 알 수 없다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의 많은 시민 대상 활동이 모든 시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사실상 접근가능한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 <별별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홍보, 실행, 그리고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해 본 경험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후 지역에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접근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후에는 상상만 하던 일 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실현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별별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시민들간 그리고 시민과 문화기관과의 관계의 네트워크는 향후 지역에서 문화다양성을 확산하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과 접점을 이룬 문화다양성 확산 노력은 이후 부평의 곳곳에서 그리고 시민의 일상 곳곳에서 수많은 또 다른 활동을 낳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2

프로그램 구성

21

문화다양성 소모임

대상	부평구 시민 누구나
활동기간	사업 선정 후 ~ 10월
내용	1~3회,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초적 이해 과정과 다양성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강의 및 워크숍 진행 4~5회, 자율적인 문화다양성 확산 과정 진행 및 온라인 멘토링 -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결과공유

단계	내용	방식
문화다양성 기초 입문	- 문화다양성을 소개하고, 우리의 일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왜 문화다양성을 인지하고 가치확산을 해야하는지 질문에 질문에 더하는 - 과정과 이해를 돕는 과정 + 지역사례 소개	강의&워크숍
다양성 감각 확장	- 인지과정을 넘어 감각을 확장하는 자각과 훈련의 과정 - 이를 통해 다양성을 인지적 관점에서 내제된 감각의 관점까지 확장하는 과정 진행	워크숍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 사례	- 일상과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이 구현되는 방식의 다양한 사례 제시 및 토의 - 지역사례 소개 및 토의	강의&워크숍
자율 과정	- 자발성에 기초하여 과제를 고민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모두 조별 자율과정으로 진행 - 온라인 멘토링 2회 9월 초 계획점검 1회 및 10월 초 중간 점검 1회	조별 자율진행
학습나눔 일상실천 계획토의	- 전체과정 소감 나눔 - 조별 자율적인 학습 공동체의 활동 나눔 - 일상에서의 실천 계획을 나누고 토의	발표 및 토의

대상	부평구 시민 누구나
활동기간	사업 선정 후 ~ 10월
1회,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초적 이해 과정과 다양성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강의 (소모임 10개팀과 공동 학습) 2회, 영상제작 계획안 점검 및 멘토링 3~4회, 제작과정 멘토링 -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결과공유	

단계	내용	방식
문화다양성 기초 입문	문화다양성을 소개하고, 우리의 일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왜 문화다양성을 인지하고 가치확산을 해야하는지 질문에 질문을 더하는 과정과 이해를 돕는 과정 + 지역사례 소개	강의&워크숍
영상 제작 기획 점검 및 수정	영상 제작 기획에 대한 점검 및 수정에 관한 개별 전문가 멘토링	개별 멘토링
제작 중간지원	- 영상 제작 중간 점검 및 필요한 지원 논의 - 팀별 협의를 통한 시기 조정	온라인 멘토링
결과발표회	영상 결과 공유 및 소감 나눔	발표 및 나눔

소모임 멘토	이완, 최준영, 최선영
8개 소모임별 담당 멘토제 운영	
영상제작팀 멘토	주현숙
2개팀 모두 멘토 담당 - 영상팀별 2회씩 온라인(ZOOM) 멘토링	

대상	소모임, 영상제작팀 및 <별별>에 관심있는 부평구 주민
일시	2023년 11월 18일(토) 오후2시
장소	청천도서관 2층
내용	소모임 8개팀, 영상제작 2개팀의 활동 결과 공유 및 토론



프로그램 구성

05

<별별 프로젝트> 일정표

구분	내용	진행자/강사
2023. 08.29.	공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향후 일정 소개	
	당신과 나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와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완 아시아인권 문화연대
	삼돌이 마을의 비밀-강원도 영월 귀농귀촌인이 늘어나는 농촌지역, 어떤 사람들이든 가지는 다양성이 귀농귀촌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지에 관한 사례	안승배 영월 문화리 사무국장
2023. 09.06.	소모임 느리게 보는 세상 눈으로는 절대 보지 못하는 세상, 장애가 아닌 다양성의 세상을 찾아가는 감각 워크숍	문미희 나무미촉각 연구소
	영상 제작 문화다양성 영상 제작을 위한 기획서 다시 보기 영상 제작에 들어가기 전, 기획을 공유하고 실제 촬영에 들어가기전 기획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	주현숙 독립다큐멘터리 감독
2023. 09.13.	소모임 문화다양성 현장 실천을 위한 친절함 안내 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 실천을 위한 사례 접근과 토의	이완 아시아인권 문화연대
	말모이와 다양성 인센티브 - 경남 김해 자발적 시민모임이 만들어낸 결과와 더 좋은 현장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례	한경동 김해문화재단
	자율활동 논의 및 멘토 소개	이완 아시아인권 문화연대
2023. 09.13. ~ 10.30	소모임 소그룹별 자율 활동 및 멘토링 • 자율적인 소그룹별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심화과정 학습 또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실천 진행 • 온라인 멘토링 2회 진행	이완 아시아인권 문화연대 최선영 유구리 최실장 최준영 문화사회연구소
	영상 제작 영상제작 활동 및 멘토링 • 팀별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계획된 영상 제작 진행 • 온라인 멘토링 2회 진행	주현숙 독립다큐멘터리 감독
2023. 11.18.	공통 결과발표회 활동의 결과를 나누고 그 안에서 찾았던 질문과 논의 과정에 한발 더 들어가 보는 시간	이완 아시아인권 문화연대

프로그램 구성

06

별별 프로젝트 포스터



문화도시부평 X 청천도서관
2023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부평구문화재단

별별 클래스

앤킴

- * 과거 우리가 몰랐던 문화다양성 이야기
- * 2023.10.04.(수) 19:30~21:30
- * 청천도서관 다목적실

이지선

- * 살아가고 있는 소수들의 이야기
- * 2023.10.14.(토) 14:00~16:00
- * 청천도서관 다목적실

하림

- * 음악에도 다양한 문화가 있다!
- * 2023.10.18.(수) 19:30~21:30
- * 청천도서관 다목적실

무료
부평구문화재단은 다양한 계층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문의
문화도시센터 연대팀 032-500-2164
도서관본부 청천도서관 032-330-9171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pcf.or.kr

주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문화재단
주관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부평 X 청천도서관
2023 문화다양성 토크콘서트

별별 콘서트

후지모토 사오리

세계 속 별의 이야기

크리스티안 부르코소

2023.11.7. 화 15:30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전석 무료

문의 문화도시센터 연대팀 032-500-2164
도서관본부 청천도서관 032-330-9171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pcf.co.kr

주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문화재단
주관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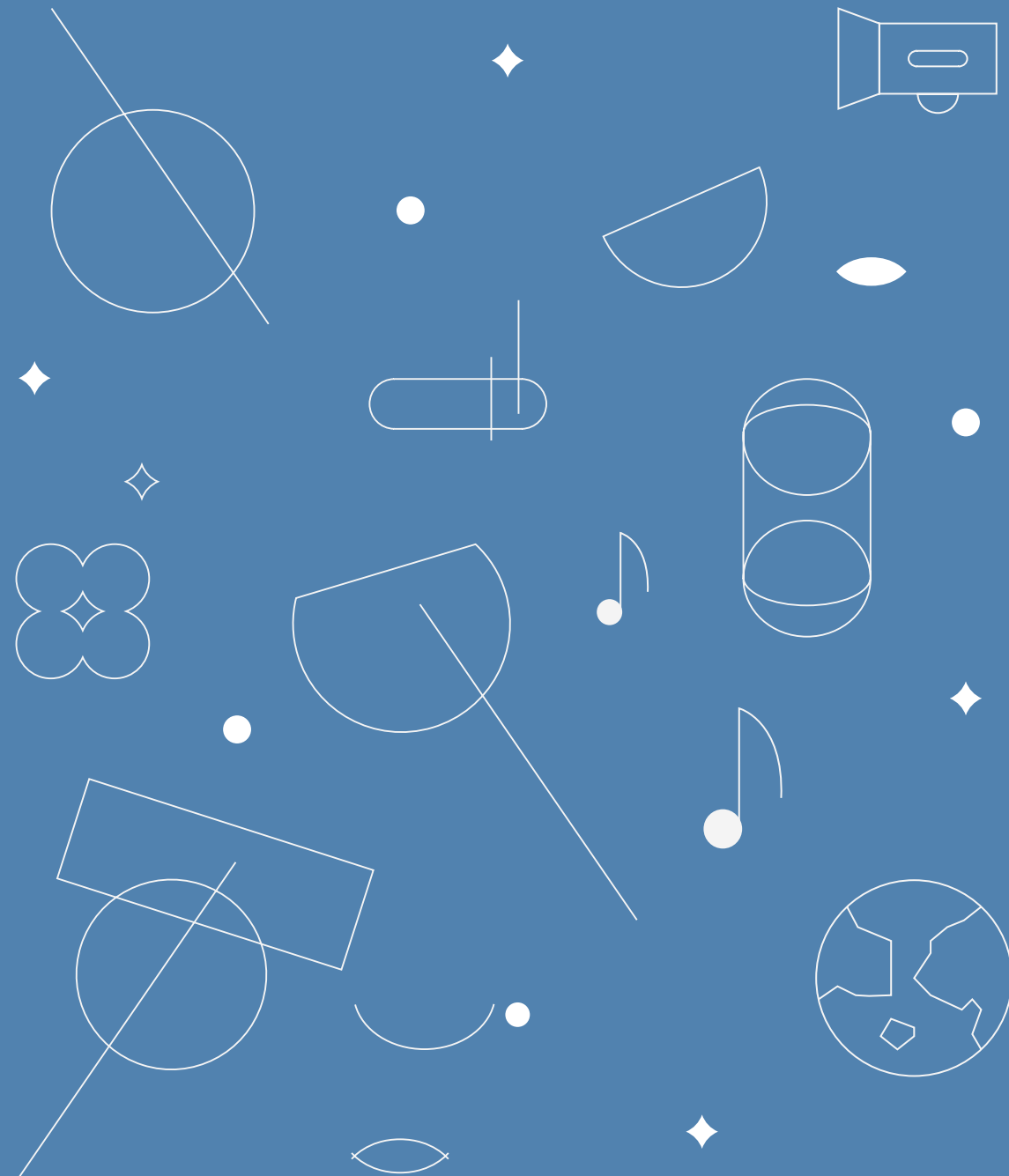


강연 다시보기

프로그램 진행과정

2

- 2-1. 문화다양성 소모임 소개
- 2-2. 문화다양성 영상제작팀 소개
- 2-3. 멘토링



2-1

문화다양성 소모임 소개

01

소모임 구성

명칭	참여인원	비고
극단 다힘	신대식, 한제윤	3명
다름-답다	김민균, 강명지, 최지훈	3명
NewL	백강산, 안혜림, 김애경	3명
즐거운 시선	김소연, 권순금, 김영휘	3명
더 콜랩	유지혜, 서지연, 연하늘	3명
우열사	임봉희, 박화석, 하향용	3명
Cultural Taste	조연희, 김양현, 유영호	3명
낭독의 시간	황아라, 김영아, 이지은, 심복순, 안은서	5명
합계		26명

문화다양성 소모임 소개

02

소모임 소개

극단 다힘

우리 팀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극단 다힘입니다.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고 대중은 틀리지 않다는 모토로 활동 중인 청년 극단입니다.

저희의 작품은 주로 이웃의 정과 죽음,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더욱 차가워진 이웃의 정과,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세상을 쉽게 떠나는 많은 사람.

그리고 차별에 집중하지 않고 평등을 지향하는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으로, 이웃의 정을 얘기하는 ‘화양동 이발소 미제사건’을 통해 제1회 놀자 청년 연극제에 선정됐고, 우울함과 죽음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인생, 네 컷’을 통해 제1회 무극 연극제, 제3회 대한민국 치유예술제에 선정되었으며 성평등을 향한 남녀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예별: 섭섭히 헤어짐’은 제6회 모노드라마페스티벌과 제3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글로벌 아티스트 선정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별별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이해함과 더불어 저희의 작품세계관도 넓히고자 지원합니다. 소모임 기간을 통해 새로운 작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 새로운 희곡을 창작하고자 희망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공연으로도 올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소개해주세요!

소모임 리더

신대식(문화예술경영) 극단 다힘 연출 및 작가 / 문화예술경영 석사

문화와 예술의 융합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게 더 폭넓은 문화전파가 가능할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위해 노력하고, 예술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번 전문강연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가치관이 더 넓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창작입니다. 다양한 수상경력을 활용해 다양성에 대한 희곡창작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참여팀원

신민주(심리학) 극단 다힘 무대디자인 / 심리학 학사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 모두에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남을 평가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는만큼 그들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열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 흥미가 있어 이번 강연을 통해 여러 가치관을 공유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02

소모임 소개

참여팀원

이소희(간호학) 극단 다힘 무대감독 / 간호학 석사 중퇴

현재도 간호사로 일하며 느꼈던 다양한 사람들의 내외적인 아픔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업병 때문인지 소리에 관심이 많아 자연스레 사람과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며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희곡 창작에 흥미가 있고, 연극으로 올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임 계획 일정을 공유해주세요!

08월 26일 선정 된 이후 진행되는 1, 2회차 수업 후 얻은
인사이트 공유와 창작방향 결정

09월 09일 창작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공유

09월 30일 1차 창작본 공유 및 피드백 종합

10월 28일 배우들을 통한 대본 리딩

11월 01일 최종 작품 완성 및 이후 작업 추진

우리 모임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이번 모임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주제를 담은 희곡 창작을 목표로 합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공연들도 다양성의 한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 인생을 극단으로 몰고가는 사람들 그리고 남성으로서, 여성으로 겪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다양성에 대한 시야를 넓혀 작품 창작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스텝들과 창작의 방향을 정하고, 창작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창작을 진행한 후 배우들을 통해 리딩 혹은 낭독극, 쇼케이스 등 가벼운 작품 흐름을 파악 후 최종 희곡을 완성할 것입니다. 희곡이 완성된 후에는 해당 희곡을 통해 공모전, 연극제, 예술제 등에 출품하며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극장의 여건이 된다면 무대를 빌려 쇼케이스 형태로라도 짧게 공연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완전한 모습은 아니어도 언젠가 하게 될 작품으로서 작품리스트에 추가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업과 관련된 강연들은 전문가들을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강의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모임 소개

다름-답다

우리 팀을 소개해주세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문학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름-답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9일 그렇게 작은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 동안의 발제 및 토론 주제로는

- 복제된 예술품은 감상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 만약 전세계가 한국어로 소통한다면 편리할까?
- 여성할당제에 관하여 / -시선강간, N번방 침묵도 가해자다 / 가해자라는 용어에 관한 정의
- 인종에 따른 특징은 주변 환경에 의한 것인가? / 굳어진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 요거프레스 사건(면접 이후 쏫컷, 노메이크업 알바생 해고 사건)에 관하여)
- 꾸밈노동, 탈코르셋에 관하여
- 화장은 남을 의식해서 하는 것일까? 한창 젊은나이의 예쁨이라는 것도 폭력적인것일까?
-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안 합의 / -굳어진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 우리는 과거의 총합일까? 아님 기억의 총합일까?
-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치인이, 능력이 있는 사실만으로 정치가 가능할까?
-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 인종에 따른 특징은 주변환경에 의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로 저희는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타인의 다양성과 가치관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팀원 3명의 모임과 토론만으로는 세상을 갑자기 변혁시킬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지나가다 혹은 그 공간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누군가가 그 주제에 대하여, 우리의 토론의 내용에 대하여,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작은 시발점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작은 시작점을 <별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싶다는 소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팀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뉘어 토론해왔던 방식을 넘어, <별별 프로젝트>에서는 구민 참여형 토론회를 개최해보고자 합니다.

선한 영향력, 건강한 시민의식, 자기 주도적인 사고방식은 건강한 타인과의 건강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들 대화의 '장'이 '다양성, 존중, 이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별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저희도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소모임에 대한 운영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활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견문이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모임 소개

나를 소개해주세요!

소모임 리더

김민균

퍼실리테이터와 중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독서토론, 토론회, 발표PT에 흥미가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인문학적인 고민과 토론에 흥미로워 합니다. 책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많지만,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먼북 이라는 키워드처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 토론으로 참여한 사람들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카드뉴스를 접한 사람들 모두, 인문학적인 고민 뿐 아니라, 그 해당 주제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과 깊은 사고와 고민들을 기반으로 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속마음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이자 진행자로서, 다수의 대외활동과 직장 경험을 기반으로, 속마음을 이끌어내는것 뿐 아니라, 말을 통해 표현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고, 그런 시간을 이번 별별 프로젝트를 통해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참여팀원

강명지

글을 읽고 쓰기를 좋아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을 잘합니다.

타인에게 영감과 영향력을 주는 삶을 바랍니다. 모든 개성이 존중받고 서로 신뢰하는 세상,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과 가치관으로 별별 프로젝트를 통해 가까이 있는, 사색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 건강한 마음을 나누고, 배우고자 합니다.

참여팀원

최지훈

기존 바칼로레아 모임에서는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에 대한 확장성에 한계를 느껴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회활동가의 교육&네트워크&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 있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처음 본 사람들에게도 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을 가졌습니다.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고, 호기심도 많은 편입니다. 과학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 인간과 과학과의 관계에 대해, 존재에 대한 의문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별별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직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다 같이 한 주제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임 계획 일정을 공유해주세요!

9월 1일	월별 정기 모임 진행 (주제 : 종교 정치적 신념 관련) / 11월 3일을 위한 발제 및 자료수집 (작업 내용 카드뉴스 업로드)
10월 6일	월별 정기 모임 진행 (주제 : 연령 세대 관련) / 11월 3일을 위한 발제 및 자료수집, 토론회 인원 모집 시작, 선정 인원에게 테마와 관련된 서적 등 자료제공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2~3주 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련), 주제 및 키워드 테마를 전달하여 폭넓게 학 습 유도 (작업 내용 카드뉴스 업로드) / 11월 3일 토론회 주제 및 발제 선정 작업
10월 30일	토론대회를 위한 구체적인 발제(세부 발제 등) 전달, 토론회 리허설 연습, 참여자에게 발제문 전달 및 자료배부 등 작업 (작업 내용 카드뉴스 업로드)
11월 3일	10명의 참여자들과 토론회 진행 및 카드뉴스 작업 (11월 3일 이후로 빠른 시일 내 카드뉴스 업로드)

우리 모임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1. 문화 다양성 인식 고양을 위한 인문학 토론회 개최

<별별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 3인에서 멈추지 않고, 부평구민 혹은 인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토론회를 개최해보고 싶습니다. 80분 분량으로, 10명의 토론 참여자를 모집하여, 직접 토론하는 문화 다양성 인식 고양을 위한 인문학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이 해당 발제에 대해 미리 (1~2주 전) 충분한 시간을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에 임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온라인같이 빠르게 노출되고 소비하는 현 시대에서, 느리고 진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 바칼로레아 팀의 목표 및 <별별 프로젝트>의 성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경험은 각자의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화'를 주제로 한 EBS <다큐프라임>에서는 '대화'를 해보지 않은 자는 표현을 하는 방법을 모르며, '표현'을 해보지 않은 자는 '표현'을 해도 되는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하여 주도적인 생각과 인문학적인 다양성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그 기회를 <별별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현해봐야 아는 것이 있고, 직접 참여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선생님이나 강사, 교수로부터 수동적 혹은 주입식 교육이 익숙했던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프랑스에서의 대학교 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 토론회를 차용하였습니다. 부평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여자들의 문화 다양성을 확산 및 고양시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직접 체험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강의를 듣는 수동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말을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 또한, 저희가 토론회에서 한 질문들을 토대로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콘텐츠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개개인의 시민의식 고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문화 다양성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뉴스는 발제 질문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저희의 목표와 취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콘텐츠 노출과 계정 유입을 통해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결과와 모임 활동 기록들도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별별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모임 소개

NewL

우리 팀을 소개해주세요.

[팀 사업 참여 동기]

저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서입니다. 팀 리더인 저는 이전에 언어교환 모임을 운영하며, 문화다양성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아랍인 친구를 배려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NewL 소모임 초창기에,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제가 메뉴를 선정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매운 것과 날 것을 못 먹는다고 판단 하여, 당시의 저로써는 무난하다고 생각되는 삼겹살로 메뉴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인은 종교 특성상 돼지고기, 알코올을 먹지 못하는데, 저는 이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급한 일이 있 다고 집에 갔고, 저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이 었고, 다음 주에 모임에서 그 친구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언어교환을 운영하려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지식 또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별별프로젝트의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교육과 멘토링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소모임 활동비를 통해 문화 교류 활동을 다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외국인 들에게 다양한 음식과 활동들을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임 운영 과 활동비 등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규모 가 조금 더 커진다면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참가비를 받으면 반발이 심할 거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별별프로젝트'라는 소중한 기회를 잡아서 최선 을 다해 역경을 헤쳐나가 문화다양성을 알리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다짐]

언어교환 모임을 운영하는 저희에게 있어서, 문화다양성 이론 교육과 소모임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의 간절함을 가슴에 새기며, 지원이 끝나더라도 부평문화재단 이 문화다양성에 대해 힘써준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모임을 통해 저희는 더 큰 사회적 목 표인 문화 다양성의 이해 증진, 더 나아가 멤버들의 상호 문화적 영감 제공 및 사회적 편견을 완화 시키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제약회사 출신의 취업 컨설턴트, 물리치료사 출신의 전문 마케터, 문화예술 공연기획자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 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업 특성을 살려서, 각 멤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문화적 가치 공유와 소수 민족 문화 보호에도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임 소개

[활동을 통해 해보고 싶은 것]

1. 국가별 음식 만들기 파티: 각자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한국인은 좋아하는 타국 음식)을 가져와 같이 공유해서 먹는 파티입니다.
2. 연애편관&직업관 공유: 현재 저희 모임은 모두 20대와 30대로 구성된 다국적 멤버들이기 때문 에, 연애편관과 직업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의 연애편관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인생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3. 서울 시티 투어: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의 역사적인 명소와 문화적인 장소를 함께 구경하고 체험 하는 활동입니다.
 - 광장시장
1905 년에 개설된 시장으로써, 5천여 개에 달하는 점포 수의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한, 100 년이 넘는 전통시장인 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역사도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같이 구경하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 명동
유명한 관광쇼핑지로서, 쇼핑 상권이 극도로 발달해있고, 실제 명동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 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관광을 온 외국인들 입장에서 꼭 가보고 싶은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 동대문
동대문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로써, DDP, 동대문 중 합시장, 청계천, 한양도성 벽화마을 등이 있습니다.
4. 한옥마을 & 한복 스냅촬영: 구경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직접 한복을 대여하여 한옥 앞에서 기념 사진도 남기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5. 전통 놀이 체험: 윷놀이, 제기차기, 활 쏘기 체험 등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전통놀이 체험입니다. (한국의 전통 놀이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간략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놀이들을 서로 소개 하며 즐기는 활동)

소모임 소개

나를 소개해주세요!

소모임 리더

백강산(영업)

[사업 참여 동기] 제가 사업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위에 작성한 팀 사업 참여 동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는 다국적 멤버들이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큰 원동력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며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 영감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짐] 저의 첫 번째 다짐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언어교환 모임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다짐은 절대 돈이나 다른 유혹에 눈이 멀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임이 자금난에 빠질 때, 상업적으로 모임을 활용하라는 주변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성장이 더디더라도 모임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진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도 건전하고 올바른 모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사] 저의 관심사는 진로와 심리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에서 취업컨설턴트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진로와 심리를 공부하다 보니, 더 넓은 세상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언어교환 모임을 개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저는 헤드헌터와 취업 컨설턴트를 통해 습득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능숙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 특성상 중장기적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업무 패턴은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저에게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킬 또한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며, 타인이 편하게 말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 능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모임을 이끄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리더십과 협업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국적 멤버들과 함께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과 음악을 소개하고 그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파티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소모임 소개

참여팀원

안혜림(마케팅)

[관심사&동기] 저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부시절,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한국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다방면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문화교류와 언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개최하는 데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활동들을 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것 & 관심 있는 것] 저는 현직 프리랜서 마케터로서, SNS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있습니다. 현재 SNS 를 통해 문화에 대한 정보성 게시물, 모임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하고 있지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포스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국어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보성 게시물을 포스팅하고 있으며,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모임의 후기와 모임에서 배웠던 새로운 표현이나 문화들을 정리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페이스북에 영어로 포스팅하며,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짐] 여러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업인만큼, 편견 없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도 알려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참여팀원

최지훈

기존 바칼로레아 모임에서는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에 대한 확장성에 한계를 느껴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회활동가의 교육&네트워크&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 있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처음 본 사람들에게도 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을 가졌습니다.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고, 호기심도 많은 편입니다. 과학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 인간과 과학과의 관계에 대해, 존재에 대한 의문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별별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직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다 같이 한 주제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소모임 소개

참여팀원

김애경(디자이너)

[관심사&동기]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여 학생 때부터 서양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음악은 미술, 건축, 그리고 삶의 모습과 같은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늘 국제적으로 교류하며 이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을 프로모션 하는 공연기획사에서 재직하면서, 문화교류, 국제교류에 대한 더 큰 관심이 생겨 현재 뉴엘이라는 문화교류와 언어교환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예술 분야에 몸담으면서, 국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별프로젝트는 단순히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저희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의공간 제공 및 교육/멘토링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특히, 2회차 강의(문화예술현장과 문화다양성에 관한 사례 공유 및 토의)를 수강 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 모임에 꼭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것 & 관심 있는 것] 저는 대학 학부 때부터 현재까지 성북문화재단, 성북구청, 서대문구청, 무종력지대 등에 선정되어 (클래식 기반) 음악 모임, 영어회화x이국적 맛집 탐방 모임 등을 대표로 이끈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공연기획사에 재직하면서, 디자인, 영상, 홍보마케팅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커뮤니티, 모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영, 디자인/영상, 마케팅, 홍보, 커뮤니케이션 등 전반적인 스킬 전체들을 두루두루 모두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나 영상 직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뉴엘 팀에서는 디자인과 영상 팀원으로 활동하며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홍보성 콘텐츠, 아카이빙에서 그치는 콘텐츠 보다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진실된 공감증을 가지고 찾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감각적인 디자인,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 등등을 뽑아내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관심있는 일 입니다.

[다짐] 다양한 문화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인 만큼 열린 마인드로, 또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배척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의 이야기를 전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뉴엘에서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디자인, 영상 등 감각적인 업무를 맡고있는 만큼 디자인 씽킹을 통해 뉴엘(NewL)이 추구하는 문화다양성과 비전이, 하나의 결로 통합되어 디자인, 영상에 녹아날 수 있도록 서포트 하겠습니다.

소모임 소개

우리 모임 계획 일정을 공유해주세요!

8월 26일	국가별 음식 만들기 파티
9월 9일	연애관 & 직업관 공유
9월 16일	서울 시티 투어
10월 14일	한옥 마을 투어 & 한복 스냅 촬영
11월 11일	전통 놀이 체험

우리 모임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자원 활동 후 모습]

- 2023.11~2023.12: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를 필두로 액티비티 활동(ex. 국가별 음식만들기)들을 진행하며 기존 멤버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SNS 를 통해 New L알려서 더욱 다양한 국적·인종·문화의 사람들과 모임을 구성하고 교류하여 30명 이상의 멤버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 2024.01~2024.06: New L 이 3개 이상의 대학교에 동아리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 훨씬 더 다른 사람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24.06~2024.12: 단순히 크기만 키우는 상업적인 형태의 언어교환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매일 느끼는 것과 배우는 것이 있는 모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쪽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뿌리가 단단한 모임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팀이 원하는 결과물(성과)의 형태]

1. 멤버들의 재참여율
2. SNS를 통한 유입전환율SNS를 통한 유입전환율
3. 멤버의 피드백 반영률(매주 모임마다 피드백 타임이 있음)
4. 별별프로젝트 이론적 교육에 대한 실제 모임 반영률
5. 운영진 점검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소모임 소개

즐거운 시선

우리 팀을 소개해주세요.

- 우리팀은 가족팀으로 얼마전 제가 여성가족재단의 프로그램에서 '이열치열 똑딱 여름 한그릇'하면서 각국의 이색 면요리에 관심을 가졌으며 동생 김영휘가 유튜버로 부평의 이색맛집을 소개하고 있으니 중식,한식,일식조리자격증을 가지신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각국 이색면요리 레시피와 부평맛집 지도도 소책자 발행에 문화도시 부평에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기획
- 참고로 권순금 어머니님은 지난번 더 꽃길(더불어 꽃길을 걷자는 의미) 소모임으로
- 작년에 문화 다양성이라는 문화도시부평 주최 강의도 들으며 활동을 했음

나를 소개해주세요!

소모임 리더

김소연

김소연은 삼산중학교서 행정실에 근무하고있으며 오래전부터 영화,오페라 뮤지컬 연극,미술전시 등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관람해 왔습니다. 요즘은 맛집투어에 관심이 있고 법정문화도시 부평에서 젊은이로서 역할 담당하고 싶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문화다양성을 배우고 탐색하고 싶습니다.

참여팀원

권순금

권순금은 한국화가와 요리사로 지난해의 문화다가치의 시민두레평가단으로 활동 하게되어 문화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22년 문화다양성이라는 문화도시 주최 강의도 듣고 활동경험으로 올해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부평의 맛집과 면요리를 정리해 보고싶습니다.

참여팀원

김영휘

김영휘는 '각궁이의 이색맛집'(2023년 8월현재 구독자 1507명)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1년 3개월 동안 이색맛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평의 다문화 면요리를 소개하고 맛집지도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소모임 소개

우리 모임 계획 일정을 공유해주세요!

8월 15일	문화도시 부평의 개념 및 다양성 학습, 공통적인 소재발굴 활동계획
9월 2일	미만마거리,부평3동 공방거리등 부평문화 돌아보기
9월 15일	부평 각국 맛집 지도제작 위한 정보수집, 활동보고서 의논
9월 24일	다국적 음식탐색 및 취식중점 다양성탐색 ,활동보고서 의논
9월 23일	종합적 활동보고서

우리 모임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지원 활동 후 모습]

부평문화의 다양성을 탐색하는 공부한 계기로 우리구민들에게 부평의 맛집지도를 제작할 생각이며 각국의 이색 레시피를 제작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소모임 소개

더 콜랩

우리 팀을 소개해주세요.

본 별별프로젝트 소모임을 위해 “더콜랩”이라는 예술단체의 기획 단원으로 소모임을 구성했습니다. “더콜랩”은 인천을 연고로 지속적인 예술 활동에 대한 연구와 공연 기획을 위해 2022년에 결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커뮤니티 사업, 평화활동지원사업, 부평구문화재단의 도시예술연구소 사업, 부평아트센터 대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와 공연을 진행하였고,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의 산실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의 사육제라는 실내악 작품 창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대부분 영유아를 키우는 청년세대로서 환경과 세대간의 공감에 대한 이슈를 서로 공유하며 예술로서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소모임을 통해 그동안 기획 초기단계에 머물던 세대간의 공존을 주제로한 음악축제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내 아이가 체험할 수 있는 예술성있는 공연, 그리고 20,30대 청년세대의 놀 권리를 알리고 청년 육아 세대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 그리고 기성세대 및 실버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레트로 음악과 문학적인 공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장소로 모든 세대가 가장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내의 도서관을 떠올렸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공공도서관들의 문화공간을 탐색하고 각 세대를 표현하는 공연의 컨셉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따른 레퍼토리 선정 및 편성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소모임 소개

나를 소개해주세요!

소모임 리더

유지혜(음악)

저는 협업을 주로하는 Collaborative Pianist (전문반주자)입니다. 다양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과 완벽한 조화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팀의 리더이자 공연기획자로서 소모임의 중요성에 관해 누구보다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창의적인 기획들이 모두 소모임을 통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이 모여 시너지를 일으키고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에너지가 모이고 사람이 소통하는 창작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킹맘으로, 3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청년으로, 예술 활동을 통해 이해받지 못했던 청년세대와 경력단절과 육아에 지친 30-40대를 대표하고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듣고 위로를 전하는 소통이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참여팀원

서지연(음악)

저는 플루티스트이자 24개월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더콜랩”의 기획단원으로 남들과 다른 독특하고 특별한 아이디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의 오래된 장소와 맛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모임을 통하여 인천와 부평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여팀원

연하늘(음악)

저는 탱고를 연주하는 반도네오니스트입니다. 클래식 음악 작곡을 전공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오랜 기간동안 연주자로 활동해왔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평 별별프로젝트 소모임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임 계획 일정을 공유해주세요!

- 9월 1일**
-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토론
 - 1회차 교육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 이해 공유
 - 문화예술표현을 통한 세대간의 갈등과 공감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
 - 예술 기획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관한 회의
 - * 목표와 주제 설정 (현장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해결방안)
 - * 가능한 롤모델(국내외) 연구
 - * 지원 가능한 사업
- 10월 1일**
-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의 다양성
 - 2회차 교육내용 공유
 - 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문화예술활동 경험 공유
 - 대략적인 공연 기획 아이디어 공유
 - * 공연 횟수
 - * 공연 방식
 - * 다른 축제나 공연과의 차별성 연구
- 11월 1일**
- 문화의 다양성을 주제로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토론
 - 인천의 도서관을 통한 문화예술기획
 - * 공연 가능한 인천의 도서관 탐색 (부평구를 중심으로)
 - * 공연장에 따른 분류 (피아노, 프로젝터, 조명 사용여부)
 - * 관객 편의 시설 (주차장, 좌석)
 - 공연 형식과 레퍼토리 연구
 - * 참여자에 관한 회의 (인천 예술 단체와의 협업 가능성, 연주자 공개 모집 등)
 - * 주제에 따른 연출과 음악 연주의 비율 조정
 - * 전반적인 악기 편성 (규모 설정)
 - 축제 진행 방식
 - * 축제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의논
 - * 진행 일정,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 등

우리 모임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본 사업의 교육과 소모임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더컬렙의 문화의 다양성 표현의 결과물인 도서관 음악축제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세대간의 공감을 주제로 공연의 장소, 형태, 연출, 레퍼토리 등을 정하고 2024년 개최를 목표로 계획하는 기획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우열사

우리 팀을 소개해주세요.

2020년에 처음으로 '2022문화다양성 소모임'에 접하고 매우 신선함에 놀랐다. 프로그램 진행은 다양한 형태로 '성소수자'에 대한 진솔한 삶과 성전환, 동성연애 등 그럴 수밖에 없는 절실한 신체 의 선천성 형질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고, 미안했고, 이해하게 되었다.

물론 그래도 아직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는 못 했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생활 태도 및 생활의식도 많은 면에서 바뀌어야 한다. 반면 우리 사회는 적어도 그들을 안전한 생활전선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작년 수료 후 우리는 뭐 대단한 동아리, 단체 등을 만들어 활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조금씩 소수자에 대하여 열리고 일상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회자시켜 우리도 성소수자에 대해 바르게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기회를 주고 존중해야 한다고 논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스스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수료 후 어느 단체에 소속되거나 그룹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은 못 되고 먼저 나의 의식을 개선하고, 이야기자리마다 지금처럼 수강한 내용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우리들의 폐쇄적 사고를 다른 문화에 대하여 차별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확산하겠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고,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나를 소개해주세요!

소모임 리더

임봉희

임봉희(블로그기자) 민족·인종·국가-문화다양성의 프로젝트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블로그 기사로 작성할 수 있다.

참여팀원

박화석

박화석(북 스타트 강사) 종교·정치적 신념-문화다양성의 프로젝트를 통해 나의 세대가 가진 종교와 정치적신념을 비교 분석하여, 내재된 선입견 및 편파성 등 고정 관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팀원

하향용

하향용(인천도시역사관 전시해설사)-문화다양성의 프로젝트를 통해 소수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의 형태가 매우 다르고 신기하고, 때로는 미개해 보여도 그것은 그 민족의 풍속이며 역사로서 존중해 야 된다는 것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소모임 소개

우리 모임 계획 일정을 공유해주세요!

9월 04일	수강한 내용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우리들의 폐쇄적 사고를 개방하여 다른 문화에 대하여 차별없이 수용해 보자고 권장한다.
9월 11일	수강한 내용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내재된 선입견 및 편파성 등 고정 관념을 타파해 보자고 권장한다.
9월 18일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문화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다른 문화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보자고 권장한다.
10월 06일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SNS의 특성을 활용한 블로그 기사 & 페이스 북 & 인스타그램에 소수문화를 소개하겠다.
10월 23일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SNS의 특성을 활용한 블로그 기사 & 페이스 북 & 인스타그램에 소수문화를 소개하겠다.

우리 모임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1. 지인들과의 모임 때마다 지금처럼 수강한 내용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우리들의 폐쇄적 사고를 다른 문화에 대하여 차별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확산하겠다.
2.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SNS의 특성을 활용한 블로그 기사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에 소수문화를 소개하여 좀 더 폭넓은 이해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소모임 소개

Cultural Taste

우리 팀을 소개해주세요.

부평의 환경을 탐닉합니다.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환경을 따라 나란히 나열된 친환경 삶을 제안하는 제로웨이스트 샵과 비건 메뉴를 판매하는 독립서점,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부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록하고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친환경 삶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실험입니다. 비거니즘이 되고 싶은 여자와 친환경 삶을 실천하는 여자 그리고 변화를 꿈꾸는 남자. 환경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모여 무해한 삶을 꿈꿉니다.

나를 소개해주세요!

소모임 리더

조연희

몇 해 전부터 무해한 삶을 꿈꾸고 있지만, 도시인으로 그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떠나야 할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별별프로젝트를 통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도시에서 친환경적인 무해한 삶을 실천해 보려 합니다.

참여팀원

김양현

부평구문화재단 시민기자로 활동했으며,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지만 부평구의 제로웨이스트샵을 방문한 적이 없어 이번 기회에 제로웨이스트샵 방문 등 환경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팀원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참여팀원

유영호

부평구문화재단 시민기자로 활동했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에 자신 있습니다. 다른 기자님들과 친분이 있고, 부평구문화재단 공모 사업에 참여해 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모임 소개

우리 모임 계획 일정을 공유해주세요!

8월 29일	발대식과 교육 이후 일정 논의
9월 6일	제로웨이스트샵 방문, 체험 활동
9월 13일	비건 지향자와의 만남, 비건을 경험하고 의견 교환
9월 20일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 제안
9월 27일	결과물 제작 방법 논의 및 실행

우리 모임의 목표를 적어주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비건을 실천하고,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스스럼없이 줍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도시 생활자들의 무해한 삶! 지원 활동 후 바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방향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부평에서 다양한 형태로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만의 무해한 삶의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사진과 드로잉, 글(에세이, 인터뷰 등 형태는 아직 정하지 않아 첫 번째 모임 후 구체화할 계획)로 완성합니다.

이번 별별프로젝트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이 맞는, 무해한 삶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점점 확장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결과물이 더 나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부평을 위해 한 발짝 내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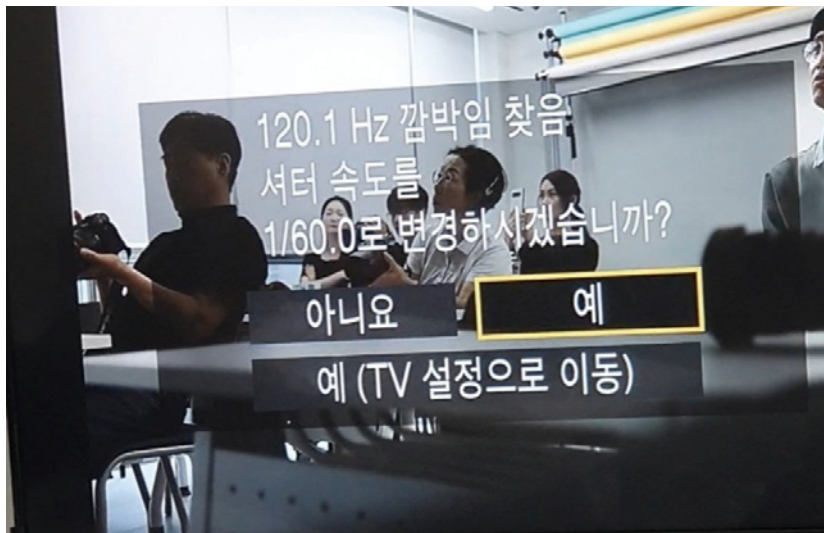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영상제작팀 소개

01

영상제작팀 구성

명칭	참여인원	비고
레브라도엑터스	서재욱, 최예진, 박민석, 오현승, 김민아, 서한임	6명
최민경	최민경	1명
합계		7명



02

영상제작팀 소개

레브라도엑터스

우리 팀을 소개해주세요.

레브라도엑터스는 2023년 2월부터 인천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인 관련 로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청년모임입니다. 구성원들은 영상, 광고, 역사, 국문학 등 각기 다른 전공을 한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들의 시선에서 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로 인천 및 비서울권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인천을 배경으로 실험적인 홍보 콘텐츠 및 청년공감 인터뷰, 음악 콘텐츠 등을 제작하며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영상으로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이력 및 예정 프로젝트]

- 비유명배우 연기 프로필 제작 콘텐츠
- 청년공감 배우 인터뷰 콘텐츠(2023.6)
- 인천 싱어송라이터와 뮤직비디오 프로젝트(2023.7~ 8.4 촬영 및 8월 말 업로드 예정)
- 인천 여성배우 연기 프로필 촬영 및 청년공감 인터뷰 촬영(8.19. 촬영 예정)
- 청년주간 인천 서구 청년센터 주관 서일삼 기획단 플래시몹 행사 기획 및 촬영(9.23 촬영 예정)

영상 제목	러닝타임	장르
누군가의 누구로만 산다는 것	약 6분	연출형 인터뷰/ 각본영상

영상제작팀 소개

영상 기획 의도

우리의 삶 주변에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좋아하는 작품의 주인공을 보고 연기를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체에 나오는 배우가 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 배우들에게는 비교적 덜 공정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좋은 연기력을 가졌지만 누군가를 위해 소비되는 역할을 부여받거나, 중년 여성부터는 대부분 누군가의 엄마라는 역할로 소비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매체연기 시장에서도 실제로 남성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주체적이고 다양성 있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 배우들은 비교적 수동적이고 나이에 따른 제약이 심한 편입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 각각의 성별은 다르고 그것을 존중해야 하지만 성별만을 이유로 차별을 받고 이런 현상들이 대중매체 시장에서 계속 악순환 되어 반복되고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의 제약이 없는 연기를 시장에 계속 보여줌으로서 제작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동등함과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내용

본 사업 제작시 휴대용전화기 카메라를 활용하여 작업한 영상

주제	여성으로서의 배우 시장에 대한 의견과 성별의 벽을 허무는 연기영상
소주제	성에 따른 개인/직업 역할의 한계
콘텐츠 분량	약 6분
영상형태	연출형 인터뷰와 배우의 연기영상
내용	젊은 여성 배우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중년의 여성 배우가 등장한다. 젊은 여성 배우는 성별을 특정짓기 어렵거나 기존 남성들이 맡았던 역할을 재해석해서 연기한다. 그리고 젊은 여성 배우로서 배우 시장에서 느낀 점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그리고 중년의 여성배우는 엄마 역할이 아닌 독립적인 역할 혹은 나이의 벽을 뛰어넘은 역할로서의 연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 삶과 배우로서의 삶에서 누군가의 누구로서 살고 있는지, 성별로 인한 삶 속에서의 차별경험, 여성으로서 기회를 잡기 어려운 독립적으로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영상제작팀 소개

최민경

우리 팀을 소개해주세요.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현재 영상 편집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해 학원 수강 중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문화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가입한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별별 프로젝트>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받았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은 환경에 대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서, 문의 전화 후 부평 혹은 인천 활동가 자격으로 <종교, 정치적 신념 부분 중 생태주의> 분야에 지원합니다.

환경 오염과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환경과 공존하려면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활 속에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 제시와 환경에 대해 노력하는 'Recycle City 부평'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영상 제목	러닝타임	장르
인간이 00의 주인이라고?	2~3분 이내	

영상 기획 의도

인간은 생태의 일부이고, 지구는 인간만의 것도 아니다. 인류는 산업화를 위해 자연을 급속도로 파괴하고 오염시켰다. 인류의 잘못으로 파괴된 자연의 복원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문제점 해결과 극복을 위해 세계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해결 방안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개인의 끊임없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큰 움직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주요 메시지]

무관심을 관심으로! 관심을 실천으로!

개개인이 '움직임'을 일으킨다면, 이는 곧 지역의 움직임이 되고 국가의 움직임이 되어 나아가 세계적 움직임이 될 것이다. 내 일이 아니라는 식의 무관심과 무실천을 내 일이라는 관심과 실천으로 바꾸자.

영상제작팀 구성

영상 콘텐츠 내용

[구성요소]

• 인트로

[기] 환경 이슈에 대해 내 일이 아니라며 무관심한 모습

환경에 대한 신문기사나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여러 환경 이슈들이 실린 신문 기사를 배경으로 '먹고 살기 바쁘다', '남의 일 아냐? 지금 당장 나와는 관련이 없어', '크고 엄청난 일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장면

- 신문기사 및 뉴스(예시)

유엔 사무총장 "지구온난화가 가고 '열대화' 시대가 되었다"고 선언

올해 7월,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달

지구온난화는 끝 이제는 지구가 끓는 시대 etc.

• 메인

[승] 어느 날 문득 몸소와 닿는 환경문제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장면

- 배달음식으로 산더미가 된 일회용품과 쓰레기로 가득 찬 집 안

- 길거리 쓰레기로 인한 수재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는데 미세먼지로 다시 닫음

- 열대야나 이상기온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

- 기후변화로 각종 벌레 극성을 부림

- 식수 오염되어 힘들어 하는 모습

- 인천 쓰레기소각장, 부평 캠프마켓 등 지역사회 이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함

[전]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시키려 노력하는 장면

- 개인

개인의 생활 습관을 변화하려는 장면(집을 치우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모습,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모습, 길거리 담배 등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모습,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모습 etc.)

- 가족

엄마, 아빠-아이를 데리고 생태문화공간인 '부평 기후변화 체험관'에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각종 환경문제들을 체험하며 배우는 모습

- 시민단체와 부평구

Recycle City 부평이 시민이 어우러져 플로깅 활동하는 모습

(굴포천 플로깅, '환경 살리go! 건강 살리go!',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플로깅 이벤트,

'줍KING' 우리동네 플로깅 etc.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 등

• 아웃트로

[결] 환경과 공존하며 행복한 우리의 모습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최민경	유구리 최실장
최준영	(사)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주현숙	독립다큐멘터리 감독



멘토단의 전문성 및 관심사에 근거하여 멘토단 배치. 멘토별 2~3개 모임/팀 담당

활동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1차 멘토링, 활동 진행과정에서의 조언 및 결과물 정리 단계에서의 2차 멘토링으로 진행(멘토링은 온라인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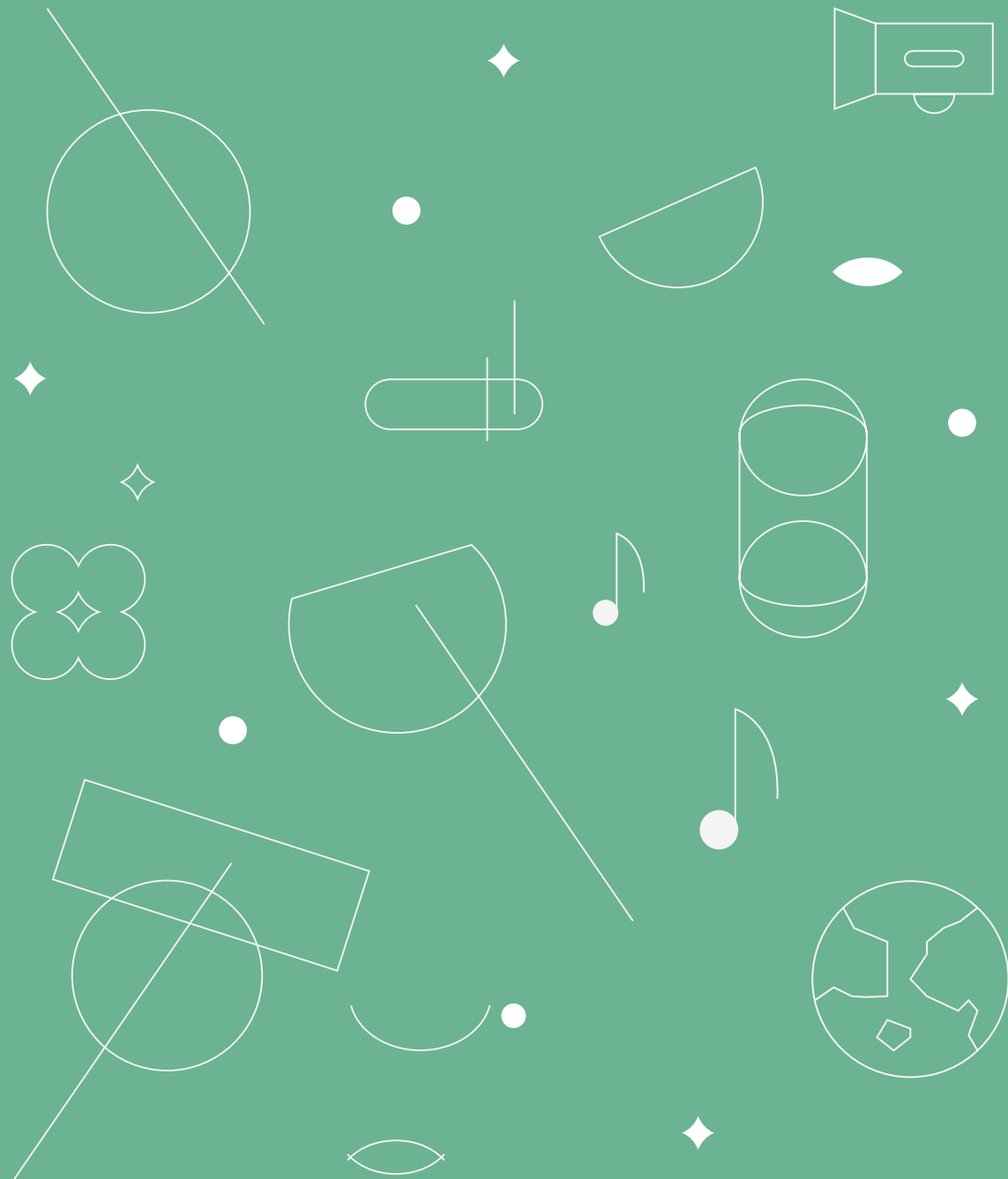
구분		멘토링 일시	멘토
소모임	다름-답다	9월 20일 / 9월 27일	이완
	NewL	9월 16일 / 10월 16일	
	우열사	9월 20일 / 9월 24일	
	Cultural Taste	9월 18일 / 10월 12일	최선영
	낭독의 시간	9월 19일 / 10월 10일	
	극단 다함	9월 21일 / 10월 20일	최준영
	즐거운 시선	9월 15일 / 10월 19일	
	더 콜랩	9월 20일 / 10월 27일	
영상제작팀	레브라도 액터스	9월 22일 / 10월 23일	주현숙
	최민경	9월 22일 / 10월 23일	

프로그램 결과

3-1. 문화다양성 소모임

3-2. 문화다양성 영상제작팀

3



3-1

문화다양성 소모임

01

극단 다힘

소모임 활동으로 무엇을 하였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날짜	활동내용
8월 20일	부평구문화재단 사업 참여 관련 극단 내 다양성 주제 토론회 진행 - 회의실에서 모여 사업과 관련된 내용 공유
8월 29일	부평구문화재단 1차 강의 참여 - 다양성에 대한 기초 이해, 사업 소개 등 교육 진행
9월 6일	부평구문화재단 2차 강의 참여 - 다양성에 대한 교육 심화, 사업 진행 방식 안내
9월 10일	제3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참가 겸 다양성에 대한 작품을 다룬 베리어프리 공연 <디어, 마이 헬렌> 감상
9월 13일	부평구문화재단 3차 강의 참여, <인생, 네 컷> 대본 각색 시작 -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작품 내 다양성 요소의 부족한 점과 좋은 점을 선별해 각색 진행
9월 21일	문화사회연구소 최준영 멘토님의 멘토링 - 현재 진행 상황 공유, 다양성에 대한 인식 변화 토의, 필요한 사항 공유
9월 23일	<인생, 네 컷> 대본 각색 전 작품 1차 리딩 진행 및 작품의 방향성 토론 - 대본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연기하기 좀 더 수월해졌다. -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 - 완성된 후의 공연이 너무 우울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10월 4일	<인생, 네 컷> 대본 각색 후 1차 리딩 진행 - 각색 후 대본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 일반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본이 된 거 같다. - 조금 더 웃음 요소를 살렸으면 좋겠다.
10월 20일	다양성 특별 교육 - 한반도 역사 정세와 다양성에 대한 교육 진행
10월 28일	<인생, 네 컷> 대본 각색 후 2차 리딩 진행 - 성과발표회 시간 조정 및 발표, 대본 리딩 후 숙지 진행 중
11월 11일	<인생, 네 컷> 공연(플랜터스 테이블, 송파구) - 예정
11월 18일	<인생, 네 컷> 각색 작품 낭독공연(성과발표회 예정) - 예정

소모임 활동을 평가해주세요.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모임 활동평가

소모임 활동 전에는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사례나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모임 활동과 강의를 통해 다양성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창작활동과 공연활동을 이어가며, 예술이 일반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닿을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창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강의를 준비해주셔서 이해하는데 너무 좋았고, 차후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별 활동평가

신대식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의 의미만큼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기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극단의 대표로 세 사람만 모였으나,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단원들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민주

다양성 교육을 통해 스스로 가져왔던 다양성에 대한 고찰과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 가져야 하는 다양성 인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시각 장애인의 보행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았고, 이전에는 알 수 없던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의 기준을 나 자신의 기준에서 시작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태윤

나이가 들수록 사는 것에 바쁘고 동심이 점점 사라지는 이때, 다양성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고 우리 역사와 관련도 깊다는 사실에 감동했으며 이를 잘 보존해서 후세에도 역사적 유물로 잘 인정받을 수 있게 가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더 마주하고, 다양한 나라를 좀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소모임 활동으로 무엇을 하였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날짜	활동내용
9월 9일 토요일	10월 6일을 위한 발제 및 자료수집, 향후 일정 및 조율 회의진행
9월 13일 수요일	10월 6일을 위한 발제 및 자료수집, 토론회 인원 모집할당에 대한 계획 회의, 선정 인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
9월 20일 수요일	10월 6일 토론회를 위한 구체적인 발제(세부 발제 등)를 통해 발제 선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
9월 27일 수요일	최종 발제를 확정, 최종 멤버 확정, 최종 2차 멘토링 회의. 최종 발제로 토론회 인원 모집 및 발제를 배포
10월 6일 금요일	10명의 참여자들과 토론회 진행 발제1 : 혐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인가? 발제2 : 만약 내가 의사라면, 연쇄살인범 환자를 치료할까? 거부할까?

소모임 활동을 평가해주세요.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모임 활동평가

별별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성에 대한 기대감, 부평구 문화재단이 다양성 문화에 대한 존중과 중요함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같은 강의를 듣기도 하면서, 다른 팀과의 교류하는 시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 네트워킹데이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있어, 본격적인 네트워킹 데이는 없었으나, 다른 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기획 의도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모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인문학적인 사고 고양과 토론회,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이 작은 시발점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사고방식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다양성에 대한 사고방식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 다름답다 팀의 사고방식도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월1회 인문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혹여,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별별 프로젝트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토론회도 11월 이후로도 기회가 된다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1 : 혐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인가?

발제2 : 만약 내가 의사라면, 연쇄살인범 환자를 치료할까? 거부할까?

틀린게 아니라, 다른 것.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지금은 맞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 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발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인권, 권리, 성차별 등등이 예전 10~20년 전 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표현하는 방법과 표현의 허용범위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이해해보기도 하고, 내 논리를 조금 더 탄탄하게 강화해보기도 하는 것. 본인만의 가치관과 답을, 정답이 아닌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내리는 답을 내리는 과정. 이러한 과정이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우리를, 건강한 '나'를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데에, 건강한 사회가 되는것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 활동평가

신대식

건강한 토론문화는 이런 것이 아닐까? 각자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공유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더 되돌아보기도 하고, 타인의 생각에 공감도 해보며, 근거있는 생각과 사고를 한다는 것.

생각과 생각을 이어가며,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며, 우리들은 2시간 정도의 시간동안 오롯이 몰입하여, 이 상황과 장소를 즐겼던 것 같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맡았던 나로서도 또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강명지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같이 노력하는 열정과 에너지가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내향적인 성격이라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경험이 적은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웠다.

토론에 관중이 있는 게 처음이라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철학적인 주제인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내 생각보다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존 멤버가 아닌 새로운 패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토론회를 계기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지훈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과 같이 토의를 하면서 긴장이 많이 되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가 하얘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각자의 생각을 얘기함으로써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혹은 생각해냈지만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생겨났던게 무척 기뻐다.

특히 중간에 패널이 아닌 사람이 질문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질문에 내 다른 생각을 추가하니 또 다른 답이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같은 단어도 다르게 사용하는게 신기하며 내겐 없던 시각이 더 궁금해지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지는 좋은 경험이었다.



소모임 활동으로 무엇을 하였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날짜	활동내용
8월 12일	주제 : OUR FOOD STORY(국가별 음식 만들기 파티) 각자 자신의 고향의 음식, 또는 추억이 담긴 음식 등을 선정하여 식재료를 챙겨오고 직접 요리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며 음식을 함께 나눠먹는 모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식재료를 안챙겨와서 아쉬웠습니다.)
9월 9일	주제 : 일주일간 있었던 일 중 가장 큰 이슈(성과, 인간관계 등) 말해보기 참석자가 많지 않아서 주제 자체를 조금 가볍게 잡고 진행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친구 브랜드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9월 23일	주제 : 한국/외국 문화 중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문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는? 기존에 시티투어를 기획했었는데, 먼저 외국인들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멘토님의 말씀대로 너무나 "관광"스러운 기획이 문제였던 것이라고 생각하여 문화 교류다운 주제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10월 14일	주제 : 인상 깊었던 해외여행 스토리 기존에 한복을 입고 한옥을 투어하는 모임을 기획했는데 멘토링을 받은 후, 꼭 한국에 온 외국인이 대상이라고 해서 그런 모임을 기획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나 서로 인상 깊은 해외여행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그 외 활동 (서울시청 광장 재즈 콘서트, 클라이밍, 자신의 꿈 이야기하기, 한강 등..)	

소모임 활동을 평가해주세요.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모임 활동평가

NewL이라는 모임을 개설한 뒤 운영진 3명 모두 회사 또는 업무와 함께 병행하게 되면서 피곤함과 부담감이 쌓여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마다 해당 모임을 개설한 것에 대한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운영자체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고, 오히려 모임을 개설한 것이 피곤해지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별> 과정을 통해서 멘토님을 통해 모임을 보다 더 문화다양성적으로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알게되고,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로 이끌어 가는 게 좋을지 제시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NewL 모임을 어떻게 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운영진들끼리 통일되었다고 느낍니다. 보다 더 사람 한 명 한 명이 살아나는 모임으로 점점 변화된 것 같아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개인별 활동평가

백강산

처음 별별프로젝트를 신청했을 당시, 문화다양성을 모임에 적용시키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을 처리하고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급급하다 보니, 정작 처음 신청했을 때의 본질은 점점 잊어가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멘토님과 멘토링을 진행하며, 우리가 방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모임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모임의 확장을 잠시 미뤄두고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추후 목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애경

처음에는 사실 영어를 늘리고,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앞으로 일하고 싶은 국제교류 분야에 도움이 되고자 운영한 마음이 큼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모임 운영 자체가 어렵고, 운영진들간의 모임에 대한 기대가 다르면서 조율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다보니 막연함이 있었고, 제가 진정 이 모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별별> 과정을 통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문화민주주의적인 관점으로 모임을 바라보게되고, 운영 방향성을 정리하게 되면서 저는 NewL에 대한 저의 마음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운영해보면서 참여율이 낮기도 하고, 언어 장벽이 있다보니 깊은 이야기로 잘 이어가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볍지만 한 언어 교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는 모임으로 한층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생활로 NewL의 정기모임에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도 서포터 운영진의 역할로서 NewL을 문화 교류 모임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운영에 도움을 주신 부평구문화재단, 그리고 이완 멘토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안혜림

소모임 활동으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머리로 알고만 있던 '틀리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모임 전에는 나랑 다른 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 활동을 시작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언어교환 모임원들과 대화하면서, 같이 활동하면서 똑같은 사안에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봤고, 그 이유도 들으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해 직접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는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소모임 활동으로 무엇을 하였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날짜	활동내용
9월 15일	ZOOM회의로 멘토님과 첫 대화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방향을 어느쪽으로 할지 고민했는데 멘토님이 다른 시도에서 행해진 결과예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데 좋을지 토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6일~ 10월 18일	맛집 조사 및 탐방 먼저 생면을 주제로 생면을 이렇게 요리하면 잔치국수가 저렇게 조리하면 비빔국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전개할까 싶었지만 조리하는 과정을 협조받아 촬영하기 어려워 접었으며. 맛집을 선정하여 2차 조사 방식으로 정보수집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10월 19일	ZOOM회의로 의견 교류 후 멘토님께 검토받음. 이후 성과결과물 방향 논의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 할 것도 없으며, 너무 욕심을 내다간 이도저도 안될 수 있으니 문화란 생활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범위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맛집 목록을 확 줄여서 거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0일~ 10월 28일	성과결과물 PPT로 작성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내용을 먼저 구성했고, 디자인도안도 하고 사진 편집도 하고 꾸미고 다양하게 시도해봤습니다.
10월 28일~ 10월 29일	종합적 활동보고서 작성 및 결과물 검토 만들어진 결과물을 토대로 의견을 종합한 재편집과 활동결과보고서를 쓰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였습니다.



소모임 활동을 평가해주세요.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모임 활동평가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고 살 수 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놀람기도 하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인식은 우리의 목표와 활동방향을 변화시켰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함께 공유하며 우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보다 소개를 하고 그로써 뭔가는 얻어갈 수 있는 정보의 습득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파하고자 합니다. 미래에도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에 기여할 것을 희망합니다.

개인별 활동평가

김소연 교육을 들으며 다양한 사례를 접해봐서 좋았습니다. 직접 만져보면서 체험도 할 수 있었고, 이런 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시각장애인 부모님들이 만들었다던 촉감 동화책이 너무 좋았습니다.

권순금 문화다양성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를 알게돼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의 한정이 불러오는 오류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영희 문화다양성 활동하면서 새로운 시선에서 나와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많이 깨우치고 느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언가를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중시하지 않고 좀 더 깊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부평 맛집지도

소모임 활동으로 무엇을 하였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날짜	활동내용
9월 14일 목요일	별별프로젝트 교육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인원은 먼저 교육 참여자의 설명과 사진등을 함께 보면서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관해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공연의 배리어프리 방식에 대해 토론해보았는데, 연주자로서의 배리어프리와 관객으로서의 배리어프리, 그리고 지금 부평 공연장의 상황과 관객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 사안에 관해 직접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참여 인원 모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이후 공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적절한 예산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리플렛을 제작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소리로 곡목을 안내하는 방식과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이수한 스텝을 고용하는 부분에 관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재단 성공사례를 통하여 지금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우리 각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의 이주민에 관해 직접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 별별프로젝트 기획안에 대한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세대간의 공감을 표현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부평의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커졌었고,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 인원이 모두 경험 가능했던 지역의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에 관해 예술적으로 표현해보자는데 공감했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최준영 선생님과과의 첫 번째 멘토링을 통해 지역 이주민에 관한 예술활동 방식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주민을 표현하는 것 보다 부평역 근처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미안마 이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이야기를 찾아보는 과정을 추천하였고, 더콜랩이 공연한 경험이 있는 그림책 음악회와 같은 공연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멘토링 이후에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하였고, 공연의 목표와 구체적인 진행 및 협업방식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의 다양성을 공연을 통해 공감할 수 있 가까운 지역의 미안마 친구들에 대해 알아가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날짜	활동내용
	때문에 공연의 목표는 아이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가족)으로 정하고, <(가칭) 우리 동네 미안마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기획하기로 의논했습니다. 기존에 협업을 진행했던 지역의 그림책 작가분과, 연출자, 그리고 영상작업자와 본 기획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식에 대해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별별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기획안을 2024년에 공연으로 구체화하기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그림을 제작하는 기간(약 1개월)과 대본(1개월)과 영상을 제작하는 기간(1개월), 그리고 레퍼토리 선정과 연습을 진행하는 기간(1개월)을 최소 4-6개월로 예상했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세 번째 모임에 앞서서 미안마 이민자분들과의 미팅을 위해서 여러 차례 카톡을 통해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지연 단원이 최준영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신 부평구에 위치한 미안마 센터와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 더콜랩의 인터뷰 취지와 공연 기획의도를 전달했지만 이민자들의 언어적인 한계와 체류 신분에 대한 걱정과 오히려 인터뷰 실행이 어려웠고, 결국 언어적인 어려움이 없는 유학생들 소개해 주셨지만, 유학생으로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서울에 살고 있어서 인천에 살고있는 이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유학생 분이 인천에 사는 지인을 소개해 주셨는데 문자로 몇 차례 소통한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아서 마지막 단계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접목하기로 했던 배리어프리 방식 중 시각장애인용 점자 리플렛 제작을 직접 실현해보기도 했습니다. 더콜랩이 11월 16일 부천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준비중인 환경관련 창작 실내악 공연 <멸종위기 동물의 사육제> 리플렛 중 100장을 점자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자 리플렛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리플렛 제작 단계에서 점자가 들어가는 내용에 관한 의견 조율이 있었고, 제작 일정과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소모임을 진행했고, 오후 1시에 멘토님과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음악극을 제작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의논했고, 연출을 통해 음악극의 취지에 맞는 내용을 각색하되 사실에 근거한 주인공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 일부를 제보자의 이름과 소재를 밝히지 않고 제작할 것에 대해 조언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작성일까지 인터뷰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이민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연과 교육 사업을 기획해 나가기로 조언해주셨고, 이후 기획에 대해서도 자문으로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소모임 활동을 평가해주세요.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모임 활동평가

별별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이전, 기존에 알고 있던 ‘문화의 다양성’과 교육을 통해서 이해한 부분에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경험한 문화의 다양성은 조금 충격적이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더콜랩은 모임을 통해서 각자가 교육 시간에 느낀 점을 나누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함께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예술가로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더콜랩이 그동안 진행하던 가족대상 음악극을 제작하기 위해서 미얀마 커뮤니티와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 미얀마 이주민들은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인터뷰에 관해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미얀마 노동자 센터와 약 세 명의 미얀마 사람들을 거쳐서 저희의 기획 단계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과 연결이 되었지만, 결국 구체적인 인터뷰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미얀마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현재 예정된 2023년 11월 16일 더콜랩의 공연 준비 단계에서 점자 리플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천아트센터 주위의 시각장애인센터와 해광학교(특수학교)와 사전 연락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협력 요청을 드렸고 제작중인 리플렛과 함께 공연 홍보자료를 전달 예정입니다. 별별프로젝트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본 모임에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개인별 활동평가

유지혜

교육을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해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갖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느끼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더콜랩의 단원이 더욱 같은 목표를 갖게 되고 함께 필요성을 느끼게 된것 같아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공연 기획 부분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멈추지 않고 본 기획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지연

이번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평소 관심을 가졌던 문화다양성 관련된 강의도 듣고 또 그내용을 토대로 모임에서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기존 생각했던 주제가 더 구체화 되었고 팀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일을 진행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도 겪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원활하게 소통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것이 꼭 언어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문화와 환경이 다른것, 이민주 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기획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겪었던 시행착오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앞으로 원래 기획했던 의도를 살려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며 창작 예술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예술단체가 표현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연하늘

소모임에서 준비해주신 강의를 통해 막연하게 관심있었던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과 몰랐던 것들에 대해 알수있었습니다.(예를 들어 점자 작업을 할때에 내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과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고력 등...) 하고 있는 예술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것을 적용시킬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하는 활동에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주민과의 인터뷰와 그에 관한 기획을 소모임 구성원들과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소모임 활동으로 무엇을 하였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날짜	활동내용
9월 3일	교회 성도들과 차를 마시며 수강한 내용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우리들의 폐쇄적 사고를 개방하여 다른 문화에 대하여 차별 없이 수용해 보자고 권장하였다.
9월 24일	3대가 모인 추석날 3대가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수강한 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기성세대와 MZ 세대의 생각을 기탄없이 풀어 놓았다. 또한 교회성도들과도 어떻게 하면 세대 간 사고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9월 18일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문화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다른 문화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보자고 권장하였다.
10월 16일	수강한 내용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내재된 선입견 및 편파성을 타개해 보자고 권장하였다.
10월 31일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SNS의 특성을 활용한 블로그 기사 게재



◀블로그 기사 [소리로 꿈꾸는 사람들]

소모임 활동을 평가해주세요.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모임 활동평가

우열사 그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3회의 오프라인 강의 및 2회의 온라인 줌 회의를 모든 그룹원이 참석하여 잘 수료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각자 모임을 하고 또는 가족 간에 문화의 다양성을 토론하고 또 그때마다 모임원이 전해 주는 또 다른 문화에도 귀 기울여 경청함으로 다음 기회에 우리들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나이가 주는 약간의 굳은 사고를 열린 사고로 전환하여 타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해 주려는 태도를 보이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어도 우리는 계속 자리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며 이해도를 증폭시켜 나가겠다. 거창한 단체는 아니더라도 굳은 땅에 흙을 파는 낙숫물처럼

개인별 활동평가

임봉희

그룹 지도자로서 특별히 잘한 것은 없었지만 그룹원을 독려하고 결집하고 본 프로그램의 의도와 방향성을 잘 짚어 주었다. 그 결과 내년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다시 도전해보자고 약속하였다.

내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시간을 내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틈틈이 블로그에 기사를 올릴 계획으로 공평한 사회 배려와 존중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작은 힘이 있다.

박화석

우열사 그룹원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하시고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신 분이다. 매사 책임감이 투철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사시는 선생님이다. 요즘도 일터에서 만나면 우리의 대화에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하여 빠지는 날이 없다. 그리고 각자의 모임에서 다른 문화의 다양성에 대하여 또 그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올해 처음 하셨는데 그 열정과 사명감은 과연 으뜸이다.

하향용

'2023 문화다양성 소모임 지원프로그램'이 시작 전에 다친 다리가 아직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여 고생하였다. 송도국제도시에서 부평까지 오는 전철은 유독 길고 계단이 많았는데도 잘 참으시고 꾸준히 활동하셨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체험을 했던 날 어쩔 그렇게 흥미롭게 송도까지 오는 내내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말 따뜻함이 철철 넘치신다. 약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슴 가득히 안고 계신다. 오죽하면 친구들이 "너 문화다양성 홍보대사니?" 하고 물었을까. 큰 박수를 보낸다. 내 곁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소모임 활동으로 무엇을 하였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날짜	활동내용
9월 18일	최선영 멘토님 1차 멘토링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소모임 활동이 변화된 과정과 활동 계획에 관해 설명 후 활동 방향성에 대한 멘토링 진행. 조연희 처음 지원할 때 환경을 주제로 신청했지만, 문화다양성 강의를 들으면서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으로 주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부평역을 중심으로 점자블록을 따라 걸으며 어디까지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지 직접 따라 걸어보고 마을 지도를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1차 멘토링을 통해 다른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멘토링을 듣고 난 후 처음 기획이 비장애인의 생각으로만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시각장애인을 만나보는 방향으로 기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양현 문화다양성 강의를 들으며 감각워크숍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해 더 생각해 보자는 의견으로 기획의 방향을 바꾸었고, 점자블록을 따라가며 마을지도를 만들고,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보자는 수정 기획안이 다시 1차 멘토링에서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시각장애인을 직접 만나보라는 제안을 받아 부평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견학하고 복지사님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면서 의견을 모아 기획안을 수정하고,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하나하나의 기록이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멘토의 말씀에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팀원 일정에 맞춰 장애인복지관 견학 예약을 했고, 10월 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영호 시각장애인과 접촉하지 않으면 비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멘토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만나본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만나보지 않은 비시각장애인이 있을 때,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만나 활동한 후 문화다양성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시각장애인과 만나보지 않았던 비시각장애인과도 분명 입장과 경험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시각장애인과 만나보지 않았던 비시각장애인에게 설명하고 간격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날짜	활동내용
10월 12일	최선영 멘토님 2차 멘토링 부평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계양구 시각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등 시각장애인과 직접 만남을 시도한 과정 설명 후 관련 멘토링 진행. 조연희 1차 멘토링 이후 시각장애인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유튜브와 SNS로 먼저 접근해 봤습니다. 요즘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장애인의 일상을 유쾌하게 풀어낸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술'을 즐겨 보고 있다는 것과 소감 등을 전달드렸습니다. 멘토님 역시 시각장애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고나 병 등으로 인해 후천적 혹은 나이가 들어 점점 시야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직접 시각장애인을 만나 는 게 어렵다면, 주변에 나이 지극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큰 틀에 갇혀 좁아졌던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멘토링 후 활동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 각자 생각한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활동을 해보고 생각을 모아 보기로 했습니다.
10월 18일	미추홀학산생활문화센터 <시각장애인극단 '마냥' 정기공연> 관람 _ 조연희 '원샷한술'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직접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산생활문화센터에서 시각장애인극단 '마냥'의 정기공연 소식을 접하고 <희망, 5mm>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질병으로 인해 시각을 잃은 사람, 흐릿하게 느껴지던 빛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 사람. 친구가 되는 데 장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던 자신의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부러워하는 건 다르지 않다는 것.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시각장애인이라는 키워드를 더해 재미나게 풀어낸 공연이었습니다. 추후 '마냥' 팀 모임에 초대받아 참여하기로 했고요. 별벌프로젝트 활동이 끝난 뒤에도 마냥 팀과 인연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날짜	활동내용
10월 24일	계양구 <흰 지팡이 체험> 참여 _ 김양현, 유영호 인천시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흰 지팡이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과 길 안내 등 기본 사항을 배우고, 2인 1조로 눈을 가리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이용, 인도에 나서서 건물 주변을 걷고 횡단보도를 건너보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은 평소 즐겨보는 시각장애인 유튜브 채널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았고, 체험은 겁이 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과 안내자의 신뢰감과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10월 23일 / 28일	소모임 중간 모임 _ 조연희, 김양현, 유영호 멘토링을 진행하며 활동 계획이 달라져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보고자, 각자 활동 후 팀원들의 생각 모으기를 했습니다. 직접 시각장애인을 만나고, 흰 지팡이 체험을 한 뒤 처음과 달라진 시각장애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고요. 앞으로 더 확장된 활동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모임 활동을 평가해주세요.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모임 활동평가

조연희

강의와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러운 나머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멘토링을 통해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정된 활동 기간 동안 교육과 멘토링이 길게 잡혀 있어 직접적인 활동 기간이 짧아 아쉬웠습니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 섭외 과정도 쉽지 않았고요, 기간 내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해서 마음이 조금 더 깊어 생각하고 활동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첫 활동인 만큼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것처럼 말이죠. 올해 활동을 기반으로 처음 계획했던 시각장애인 지도를 만들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현

기초 교육과 멘토링을 하면서 주제를 변경했기 때문에 지원 과정에서 관심 분야만 선택하고, 관심 분야가 같은 지원자들을 모아 멘토링을 하면서 각자 역할이나 세부 활동을 배분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멘토님의 조언이 좋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나, 처음 소모임에서 생각했던 계획과 방향이 많이 달라져서 처음 계획대로 실천했어도 좋았고, 재미있었겠다 생각했으며,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소모임의 계획대로 실행해 보고 싶습니다.

각자 생업이 있고, 모임 시간이나 기간이 여유롭지 못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센터나 활동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것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관심과 시간이 있으면, 관계자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었을 텐데 체험과 활동이 후반부에 이루어져 활동을 확장하지 못한 것 같고,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추후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양한 장애 중 시각장애에 포커스를 두었는데도 하고 싶은 활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그야말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주제라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고, 소모임끼리도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호

경험 많은 두 기자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재미있게 참여했습니다. '흰 지팡이 체험 및 교육'을 통해 유튜브에서 보았던 내용을 똑같이 교육하는 것을 보고,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청년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교육과 접근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흰 지팡이 체험과 같은 활동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개인별 활동평가

조연희

강의를 듣고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주제가 바뀌고 활동 계획이 바뀌면서 실제 활동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강의와 멘토링이 거듭될수록 문화다양성이 참 어려운 주제라 느꼈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문화다양성에 더 깊이 이 발을 들여놓은 거라는 멘토님 말씀에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한 인터뷰집을 제작해 볼 계획입니다.

김양현

부평구 소재지, 부평구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찾으려다 보니 막막한 부분이 있었는데, 활동 범위를 확장하면 다양한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소모임에서 계획했던 내용을 실천해 결과물을 얻었다면 더욱 보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팀원들과 잘 조율하여 실천해 보겠습니다.

유영호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업 참여를 통해 문화 다양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좋았습니다. 팀원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효율적으로 활동하면 더 좋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소모임 활동으로 무엇을 하였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날짜	활동내용
1월 11일~1월 25일 / 격주 수요일, 2회	선정도서 :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저, 세계사
1월 11일~1월 25일 / 격주 수요일, 2회	선정도서 :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저, 세계사
2월 8일~3월 22일 / 매주 수요일, 4회	선정도서 :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 사계절
4월 12일~4월 26일 / 매주 수요일, 4회	선정도서 : 여행의 이유/ 김영하 저, 문학동네
5월 3일~5월 31일 / 매주 수요일, 5회	선정도서 : 튜브/ 손원평 저, 창비
6월 7일~6월 28일 / 매주 수요일, 4회	선정도서 : 이반 일리치의 죽음/ 레프 톨스토이 저, 현대지성
7월 5일~7월 19일 / 매주 수요일, 4회	선정도서 :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김선경 엮음, 메이본
8월 2일~8월 30일 / 매주 수요일, 4회	선정도서 : 호랑이를 닮은 가두면/ 태 켈러 저, 돌베개
9월 6일~10월 18일 / 매주 수요일, 6회	선정도서 : 사자가 작아졌어!/ 정성훈 글·그림, 비룡소 엄마의 품/ 박철 글·김재홍그림, 바우슬 여우누이/ 김성민 글·그림, 사계절
9월 27일 / 수요일	별별 프로젝트 계획 논의 (1차) :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느낀 점 공유, 읽었던 책 속의 다양성 찾기, 이후 활동 논의
10월 20일 / 금요일	별별 프로젝트 계획 논의 (2차) : 활동내용을 구체화, 선정도서 확정 긴긴밤/ 루리 글·그림, 문학동네
10월 23일~11월 10일 / 15일간	대상: 동아리 회원 내용: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15일간 선정도서 완독하기! 매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인상 깊은 문장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밴드에 올리기, 댓글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론 이어가기
11월 15일 / 목요일	대상: 동아리 회원 및 지역 주민 내용: 함께 선정도서를 낭독한 후, 책 속에서 다양한 인물이 연대하는 모습을 찾아보고,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기

소모임 활동을 평가해주세요.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모임 활동평가

저희는 나이, 직업, 가족형태, 생활방식 등이 다른 5명이 오직 책을 매개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이렇게 친해지지 못했겠지?”라고 말하며 신기해 합니다.
<별별>에 참여한 덕분에 저희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개별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제각기 달랐던 저희는 <별별>에서 마련해 주신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 점을 알게 되었고,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찾아 갔습니다.또 ‘개별성’이 확대되면 ‘다양성’이 된다는 멘토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분위기를 지역 사회로 확장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간접경험을 통해 타인의 삶을 살아보게 해줍니다.낭독은 이 경험을 더욱 생생하게 해줍니다.
또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용기내 내 목소리를 내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저희 동아리의 장점인 ‘개별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 같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신중하게 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도서 선정을 위해 그동안 함께 읽었던 책들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며 새롭게 배운 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문화다양성’이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남의 일처럼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이끌어내고 실천에 이르게 하는 데 책과 낭독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별 활동평가

황아라 무엇보다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활동이 자연스럽게 각자의 개별성을 드러내고 또 존중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은 신기하고 기분 좋은 발견이었습니다. 회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에 귀를 기울여 주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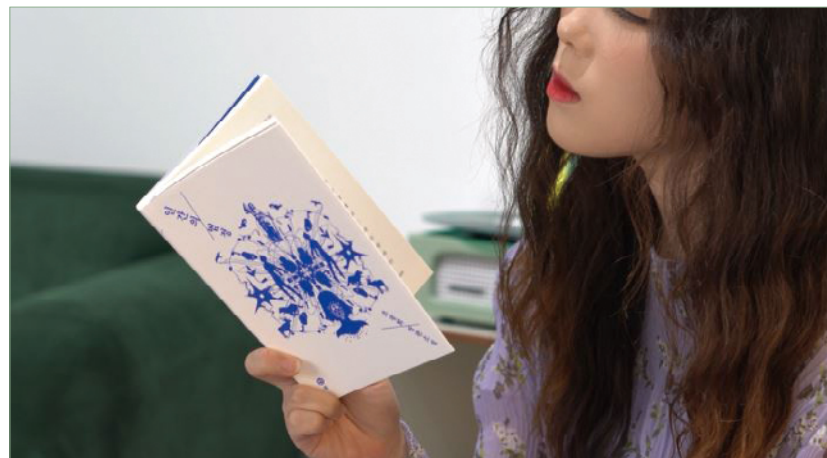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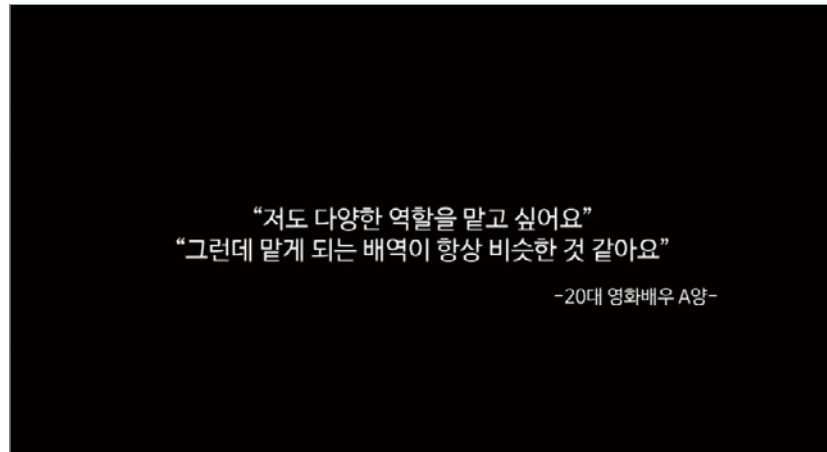
김영아 이곳에 살게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역 기반의 모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낭독의 시간'을 통해 깊이 있게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제게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데요, 함께 읽는 경험은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혼자라면 읽지 않았을 책을 읽기도 하고 서로 다른 감정과 관점으로 읽어내는 모습을 보며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지역 사회로 확산될 때 포용성이 높은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독서가 기피되는 세대 속에서 낭독을 통해 부담은 내려놓고 함께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이 쌓이고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이지은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인종, 연령, 장애 등의 특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다른 개인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다 폭넓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낭독회 활동을 문화 다양성 활동으로써 이해하고 접근하여 계획하는 과정을 통해 책의 선정 및 토론 주제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 나누며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심복순 부개동에서 20여년을 도서관 가까이 살면서 프로그램 참여는 처음인데요. 낭독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목소리를 통해 다양한 장르(고전, 유명작가 에세이, 시집, 동화 등)의 여러 책을 접해보니 새로운 경험과 감정을 느끼고, 타인의 목소리로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낭독의 매력으로 느껴져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여 함께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낭독을 통해 남들 앞에서 발언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안은서 독서 동아리라고 하면 보통은 각자 책을 읽어온 후 발제를 뽑아 독서토론을 하지만, 저희는 모인 자리에서 함께 낭독을 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낭독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의 낭독을 듣다 보면 하나의 텍스트를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른 이의 낭독을 통해 또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직접 낭독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책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고, 함께 읽으니 발제문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영상 설명

영화, 드라마, 연극등의 문화예술 시장에서 여성은 주체적인 역할보다는 주변 사람으로서 소모되고 도움이 필요한 역할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여성 배우들은 역할의 한계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문화콘텐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세계이다.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모습을 왜곡 없이 담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학교나 일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공감을 느낀다.

문화 콘텐츠는 누군가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간접적으로 들여다 보는 창구이기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모습을 다양하게 담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 설명

'생태주의'란 이제는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환경과 공존을 하려면 작은 실천을 생각해 보고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면서 어울러 살아가기 위해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유도하고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일본인, 학생의 실천 인터뷰를 함께 담아 가까운 일상에서 환경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2023 문화다양성 <별별> 소모임 활동보고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모임 구성원은 누구누구이며, <별별>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등)

(이름과 사는 곳, 사업 참여 동기, 다짐, 관심사, 소모임에서의 역할, **별별**)을 통해 하고 싶은 것 등)

이름 (사는 곳)	소개글

(〈별별〉 소모임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과 이를 위한 계획)

활동보고서 양식

활동보고서 양식

4. 소모임 활동으로 무엇을 하였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날짜별 활동내용과 소감(평가), 모임 모습을 담은 사진, 활동의 결과물 소개 등)	
날짜	활동내용 (사진 등 증빙자료와 활동결과물은 별도로 첨부해주세요)

5. 소모임 활동을 평가해주세요.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모임/개인별 활동평가, 소모임 활동 전/후로 바뀐 점, 앞으로의 계획 등)	
[소모임 활동평가]	
[개인별 활동평가]	

멘토링보고서 양식

멘토링보고서 양식

2023 부평구 문화다양성 <별별> 소모임, 영상제작 멘토링 보고서	
소모임/팀명	
멘토링 일시	
참석	
멘토	
□ 소모임/팀 구성 및 프로젝트 내용 *소모임/팀 구성원 및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소개	
□ 멘토링 방향 및 내용 *기대되는 지점, 좀 더 고민(보완)이 필요한 지점 등 멘토링 내용에 대한 서술	
□ 기타의견 *2차 멘토링 때 꼭 확인해보고 싶은 내용 등	



발행정보	2023 문화다양성 소모임 영상제작지원 별별 프로젝트 결과보고집
발행인	이찬영
편집인	황유경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엮은이 문화사회연구소
감수	공민정
편집 디자인	쿠스쿠스디자인랩
엮은이	문화사회연구소
총괄	최인호, 임정인
기획	공민정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전화	032)500-2000
홈페이지	www.bpcf.or.kr
블로그	blog naver.com/bupyeong_art
인스타그램	부평구문화재단 @bpcf_official / 문화도시부평 @cultural_city_bp

본 책자 저작권은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에게 있습니다.

무단전재를 금하며, 인용할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문화도시부평 2023년문화다양성 소모임 영상제작지원 <별별 프로젝트> 사업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